

광주 남구청 양궁팀 창단 첫 전국무대 데뷔전 치른다

10~15일 종별선수권대회 출전

이승윤 “새로운 도전 좋은 결과 낼 것”
임지완 “광주양궁 가능성 증명하겠다”
이현창 감독 “최고의 팀 도약 첫걸음”

남구청 남자양궁팀이 창단 이후 첫 전국무대에 데뷔한다.

남구청 양궁팀(단장 김병내 남구청장)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 남녀 종별선수권 양궁대회에 출전한다.

지난 3월 창단 이래 첫 출전하는 대회다. 남구청 양궁팀에게는 동계훈련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첫 전국대회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대회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 출발하는 만큼 새로운 마음자세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현창 감독은 “창단 이후 첫 출전하는 전국대회라 부담도 있지만, 그동안 땀 흘린 선수들을 믿는다”며 “좋은 성적을 거둬 전국 최고의 팀으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국가대표 이승운을 비롯해 김승운, 임지완, 이건희 등 선수 4명과

이현창 감독 등 총 5명의 선수단이다.

주장 김승운은 “팀이 어렵게 창단된 만큼 선수들의 마음자세도 남다르다”며 “후배들과 함께 소통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만큼 그 어느 팀보다 끈끈한 동료애가 팀의 장점”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광덕고를 졸업하고 현대제철에서 선수로 뛰다가 향으로 돌아 온 임지완은 “고향을 위해 뛰게 돼 기쁘다. 광주를 빛낸 여자양궁만큼 남자양궁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2021 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4위로 아쉽게 도쿄행 티켓을 놓친 이승운의 각오는 남다르다.

이승운은 “리우에 이어 올림픽 2회 연속 출전은 무산됐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후회는 없다”며 “광주와 소중한 인연을 맺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팀의 막내 이건희는 “첫 전국대회라 긴장돼지만 팀 선배들을 믿고, 평소 연습처럼 부담 없이 시합에 나서고 싶다”며 “팀 분위기가 좋아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남구청 선수단은 지난 동계훈련에서 기술훈련과 체력훈련을 병행하며 경기력을 키웠다.

이현창 감독은 마지막으로 “지금의 남구청 양궁팀을 창단해준 김병내 청장님에게 거듭 감사드립니다”며 “응원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 경기 최



광주 남구청 남자 양궁팀. 사진 왼쪽부터 이현창 감독, 이건희, 이승운, 임지완, 김승운.

〈남구청 제공〉

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종별선수권 양궁대회는 남자일반부 17개팀 69명, 여자일반부 16개팀 66명, 남자대학부 12개팀 74명, 여자대학부 12개팀 53명, 남자고등부

21개팀 106명, 여자고등부 27개팀 109명이 참가한다.

광주에서는 남구청(남자일반부), 광주시청(여자일반부), 조선대(남자대학부), 광주여대(여자

대학부), 광주체고(남·여고등부)가 출전한다. 경기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심석희 “내가 먼저 간다”

6일 서울 태릉빙상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2021-2022시즌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여자부 1000m 결승 경기에서 심석희(맨앞) 뒤로 최민정, 노도희, 이유빈, 김아람이 질주하고 있다. 심석희가 500m에 이어 우승하며 2관왕이 됐다. /연합뉴스

안방 2패 전주KCC “18.2% 확률 뚫어라”

1·2차전 진 팀 역전 우승 확률...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오늘 3차전

프로농구 2020-2021시즌 정규리그 1위 전주 KCC가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에서 벼랑 끝에 몰렸다.

KCC는 3일과 5일 전북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 1, 2차전에서 정규리그 3위 팀 안양 KGC인삼공사에 연달아 패했다.

2패를 당한 KCC는 7일 경기도 안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원정 3차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한

팀이 1, 2차전을 모두 이긴 경우는 지금까지 11번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1, 2차전을 진 팀이 승부를 뒤집어 우승한 사례는 두 번이 있었다. 확률은 18.2%다.

1997-1998시즌 KCC의 전신 대전 현대가 부산 기아(현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2패를 당한 뒤 결국 4승 3패로 우승했고, 이후 20년 만인 2017-2018시즌 서울 SK가 원주 DB에 2패 뒤 4연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 두 차례 역전 우승 가운데 올해 KCC처럼 홈

에서 1, 2차전을 내주고 반격에 성공한 것은 1997-1998시즌 현대가 유일하다.

2017-2018시즌 SK는 원주에서 2패 후 안방으로 돌아와 반격에 성공한 경우다.

일단 7일 3차전을 마친 1승 2패를 만든다면 단기전이지만 ‘장기전’ 성격도 있는 7전 4승제에서 KCC가 시리즈 분위기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한 팀이 1, 2차전을 다 이기고도 최종 7차전까지 간 사례도 11번 가운데 세 번이나 되고, 6차전에서 끝난 경우도 4번이다. 다만 한 팀이 1~3차전을 모두 휩쓸 경우는 세 번이 나왔는데 이때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시리즈가 4-0으로 마무리됐다.

일단 인삼공사가 1, 2차전 승리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지만 3차전이 시리즈 전체 흐름을 좌우할 커다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나달, 17세 어린 알카라스 꺾고 16강 진출

ATP 투어 마드리드 오픈 4년만의 패권 탈환 나서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총상금 261만 4465 유로) 4년 만에 패권 탈환을 향한 첫걸음을 가볍게 시작했다.

나달은 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단식 2회전에서 카를로스 알카라스(120위·스페인)를 2-0(6-1 6-2)으로 완파했다.

이 대회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나달은 16강에서 알렉세이 포피린(76위·호주)을 상대한다. 이날 나달이 꺾은 알카라스는 세계 랭킹은 100위 밖의 선수지만 2003년생 유망주다.

나달이 1986년생으로 둘의 나이 차이는 17살이나 된다. 35세와 18세로 거의 두 배 차이다.

볼과 17살이던 지난해 투어 대회보다 한 등급 아래의 챌린저 대회에서 세 차례나 우승하는 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을 듣는 알카라스는 현지 날짜로 자신의 18번째 생일에 나달을 상대로 비록 졌지만 좋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서브 최고 시속 206.8km를 찍어 199.5km의 나달보다 빨랐고, 나달의 서브 게임도 한 차례 따냈다.

1회전에서 알카라스는 아드리안 만나리노(34위·프랑스)를 2-0(6-4 6-0)으로 완파하는 등 18세 답지 않은 기량을 뽐냈다.

나달의 16강 상대 포피린도 나달보다 13살 어린 1999년생이다. 나달은 이 대회에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함께 열고 있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무투아 마드리드오픈(총상금 254만 9천 105 유로)에서는 애슐리 바티(1위·호주)가 4강에 올랐다.

바티는 페트라 코비토바(12위·체코)를 2-1(6-1 3-6 6-3)로 물리치고 파올라 바도사(62위·스페인)와 준결승을 치르게 됐다.



6일 열린 마드리드 오픈 테니스 32강전에서 나달이 알카라스를 상대로 강력한 백핸드를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WTA 투어 대회 4강은 바티-바도사, 아리나 사발렌카(7위·벨라루스)-아나스타시야 파블류첸코바(41위·러시아)의 대결로 펼쳐진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2관 내가 죽기를 바라는자들
- 3관 미나리,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 4관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 더 스파이
- 5관 더 스파이
- 6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9관 극장판 공순아: 장난감나라 대모험 내일의 기억
- 7관 세네카를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극장판 바다 탐험대 옥토포: 불의 고리 대륙발 내일의 기억
- 8관 세네카를 학교 가는 길, 아이들은 즐겁다 어른들은 몰라요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GAC기획공연 포커스 매직드림 가곡극 <두들팝>

2021.05.11.(화) 14:00,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